

# 대파에게 치명적... '검은무늬병' 주의

8~9월에 주로 발생 잎에 타원형의 작은 갈색 반점 나타나 병 진행될수록 포자 덩어리 형성 방제용 살균제 미리 뿌려야 파굴파리·파밤나방 등 해충, 발생 초기에 신속 방제해야



파 검은무늬병 병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대파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며 지난 6일 주의를 당부했다.

대파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병해충 양상도 제각기 달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에는 대파의 생육이 저하돼 병해충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예찰로 조기 방제해야 한다.

3월 하순부터 파종을 시작한 봄 대파에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부터 검은무늬병, 잎마름병, 무름병 등의 병해와 파굴파리, 파밤나방과 같은 고온성 병해충이 발생한다.

파잎에 발생하는 검은무늬병과 잎마름병은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곰

팡이병이다. 검은무늬병은 8~9월에 주로 발생하며,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발생한다. 주로 잎에 타원형의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병이 진행될수록 반점이 세로로 길어지면서 가운데 검은색 포자 덩어리가 형성된다.

잎마름병은 검은무늬병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주로 잎 끝이나 노균병 또는 햇빛에 데어 파잎이 노랗게 변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잦은 비로 전남 무안, 전북 고창 등에서 10% 이상 병발증상을 보였다.

파잎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을 방제하려면 파에 등록된 검은무늬병 방제용 살균제를 병 발생 전부터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확시기를 생각해 농약 안전 사용기준에 맞는 방제전략이 필요하다.

로 주요 생산자별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파밤나방 성충은 파잎 표면에 20~50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잎 표면에서 잎을 갉아먹다가 2~3령이 되면 파잎으로 들어가 피해를 주고 4~5령이 되면 잎 전체에 큰 구멍을 뚫어 피해를 입힌다. 특히 여름철에는 파밤나방 발육 속도가 빨라져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나이 든 애벌레는 약제에 내성이 있으므로 알에서 막 깨어난 어린 애벌레 시기에 방제해야 한다.

방제할 때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aisrd.go.kr)에서 파(대파)에 등록된 약제를 선택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한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파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주요 채소로 병해충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김남호 농업인은 "최근 병해충 발생이 예년과 달리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사전에 철저히 방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달달한 햇밤고구마를 반값에

전북도 거시기장터 '제철제맛' 할인 이벤트  
오늘부터 15일까지 김제 공덕 고구마 5kg 2500개

제철농산물 판촉 행사인 「제철제맛」이 제4탄 김제 공덕 햇밤고구마 반값 할인전으로 돌아온다.

전북도는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제철농산물인 햇밤고구마 반값 기획전을 9일부터 15일까지 거시기장터(jp1kz.com)와 11번가에서 진행한다. 지난 6일 밝혔다.

8월 '제철제맛'으로 선정된 햇밤고구마는 끝없는 평야가 이어진 지평선의 고장 김제 공덕에서 나고 자랐다. 비옥한 토질과 천혜의 재배환경을 갖춰 전국에서 고품질은 '파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주요 채소로 병해충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김남호 농업인은 "최근 병해충 발생이 예년과 달리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사전에 철저히 방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햇밤고구마 품종은 선율이 고구마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토종 작물이다. 기존 밤고구마보다 당도가 높고 육질은 더 부드럽다. 또 보슬보슬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 햇밤고구마는 김제 공덕농협에서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한 상품으로, 생산과정부터 까다롭게 관리하고 GAP인증 시설에서 철저한 선별작업을 거친 것들이어서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고루 갖췄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김제 햇밤고구마 5kg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된 15,700원에 판매한다. 부담없이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배송은 무료로 진행한다. 구입은 거시기장터(jp1kz.com)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9일부터 15일까지 '제철제맛' 기획전 팝업창을 클릭한 후 주문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 소싱을 최초로 업무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카드로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10% 추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철농산물 판촉 '제철제맛'은 전북농협과 함께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10월까지 매일 한 개 상품씩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타사항은 거시기장터 누리집이나 고객센터(☎70-4176-829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 아동친화적 놀이공간 조성

한전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협약 체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진행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주 구도심 소재 초등학교 등과 함께 구도심 취아지구의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적 놀이공간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화 되어 있고 놀이공간도 부족한 구도심 취아지구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세 기관은 초등학교 이 방과후에 부모 없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전통놀이길 조성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통놀이길' 조성으로 아동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우려와 놀이공간 부족에 따른 아동놀이권 제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전북본부는 향후에도 협약기관과 도시재생 이슈 및 아동 놀이환경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전 전북본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라북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치된 차량 충돌 방지판보다 시각적 효과가 큰 교통안전 안내시트를 전북도내 초등학교 인근 한전 전주에 부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6일 농협김제시지부·전주김제연주축협과 함께 폭염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김제시 백산면 신란계농장을 찾아 피해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하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 닭 폐사 막아라...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 현장점검

전북농협, 김제 백산 신란계농장 찾아 피해현황·시설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6일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전주김제연주축협(조합장 김창수)과 함께 폭염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김제시 백산면 신란계농장을 찾아 피해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하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6만7,989마리(전국

41만7,196마리)가 폐사했다. 현재 전국적인 가축폐사는 2018년 907만8,528마리의 4.6% 수준이지만, 향후 폭염 발생일수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농협은 여름철 재해를 대비해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청의 기상예보, 특보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조합원에게 시정

리, 축사환경 피해예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방해,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협은 농업인의 안전과 축산시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개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

인권침해 사전예방 노력 결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인증전문기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이며, 인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체 수여식으로 대신했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 실행요건 등을 한국경영인증원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인증 심사에서는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운영, 익명제보시스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인증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축 인권 실행조치 및 상담 정례화 등 공사 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환 사장은 "공사는 이번 인권경

영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지역 혁신기관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사고·질병으로 힘드시다구요?

# '영농도우미가 달려갑니다'

농식품부, 1만6000농가 대상 최대 10일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만6,000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000여 농가에 지원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전년(7만원) 대비 1만 원 인상한 8만 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만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만

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명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해 영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孤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만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김윤상기자

## 전기안전공사 '탄소중립 지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에 앞장선다.

공사는 8월부터 전기안전 분야의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 성과 지표에 'KESCO 탄소중립 지수'를 신설하고 전사적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박지현 사장은 "탄소중립 지수 성과 지표 신설을 계기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친화적 ESG 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